



9일 베이징 국가올림픽체육센터에서 열린 한국 여자핸드볼 B조 예선 첫 경기 러시아전에서 김은아가 수비를 피해 슛을 시도하고 있다.

체조 단체 사상 첫 메달 도전

한국 남 예선 4위...결선 진출



체조

남자 체조대표팀이 예선 4위로 8강이 겨루는 베이징올림픽 단체전 결선에 올라 사상 처음으로 이 부문 메달을 바라보게 됐다.

이주형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9일 밤 8시 베이징 국가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단체전 예선에서 마루운동-안마-링-도마-평행봉-철봉 6종목 합계 365.675점을 획득, 12개 참가국 중 4위로 결선에 올랐다.

대표팀은 독일과 동점이었으나 다섯번째 종목까지 독일을 앞서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 4위가 됐다. 이로써 대표팀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예선 3위 러시아와 한 조가 돼 올림픽 단체전 사상 첫 메달 사냥에 나선다. 역대 대표팀이 올린 가장 좋은 성적은 4년 전 아테네올림픽에서 거둔 4위다.

양태영(28) 유원철(24·이상 포스코건설) 김대은(24) 김승일(23·이상 전남도청), 김지훈(24·서울시청), 김수면(22·한체대) 등 6명으로 이뤄진 대표팀은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5위에 오른 팀답게 각 종목에서 고른 기량을 보이며 같이 뛰 독일, 벨로루시, 루마니아를 압도했다. 단체전 예선은 각 국이 종목당 5명씩을



김대은이 9일 베이징에서 벌어진 2008 베이징 올림픽 기계체조 남자 평행봉 예선에서 경기하고 있다.

출전시켜 성적이 나쁜 1명을 제외한 4명의 성적을 합산해 결선 진출팀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인종합에서 아테네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대은과 차세대 간판 김수면이 각각 3위와 18위에 올랐고 금메달에 도전했던 양태영은 22위로 24명이 겨루는 결선진출 명단에 가까스로 포함됐다.



올림픽 소식

‘피겨여왕’ 김연아 “태환 오빠 축하해”

캐나다서 메시지 전달

○“빙상요정” 김연아(18·군포 수리고)가 한국 수영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의 기적을 일궈낸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전지훈련중인 김연아는 10일 매지니먼트사인 IB스포츠를 통해 “캐나다에서 TV를 통해 태환 오빠가 역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금메달 따낸 것을 정말 축하한다”고 거듭 기쁨을 표시했다.

박태환과 김연아는 지난해 수영과 피겨 종목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국민 동생들’로 떠올랐고, 각종 시상식을 통해 친분을 쌓으면서 서로의 미니 홈피에 격려의 말을 남기며 선전을 기원했다.

옛 콤피 현정화·양영자 재회

○1980년대 세계 여자탁구를 주름잡았던 왕년의 ‘탁구 여왕’ 현정화(39)와 양영자(44)가 2008 베이징올림픽이 열리는 베이징에서 오랜 만에 재회했다.

9일 베이징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탁구 전용경기장 개관 기념행사에서 만난 둘은 현정화와 양영자는 탁구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됐던 1988년 서울 대회 여자복식 정상에 올랐던 당시를 떠올리며 이야기 꽃을 피웠다.

이날 행사에는 현정화, 양영자, 유남규 외에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 오빠 발트너(스웨덴)와 중국

의 간판이었던 공리후이(2000년 단식 우승), 왕타오, 안샨(이상 남자), 리주, 치아홍(이상 여자)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출출했다.

美배구감독 장인 중서 피살

○미국 남자 배구대표 감독의 장인이 중국 도심에서 피살된 충격에도 불구하고 미국 남녀 배구팀 모두 10일 예선 첫 경기를 승리로 따내는 투혼을 발휘했다.

남자대표팀 휴 매커런 감독의 장인이자 2004년 아테네올림픽 여자배구대표로 출전한 엘리자베스 위즈 배크먼의 아버지인 토드 배크먼은 지난 9일 베이징 도심을 관광하다 40대 중국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했다.

전혀 뜻밖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세트스코어 2-0으로 앞서가다 두 세트를 내리 내주며 2-2까지 몰렸지만 마지막 투혼을 발휘하며 5세트를 15-10으로 따내면서 3-2로 극적인 승리.

카메룬, 온두라스 꺾고 첫승

○한국과 무승부를 거뒀던 카메룬이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조별리그에서 온두라스를 꺾고 첫 승을 신고했다.

카메룬은 10일 오후 중국 친화도 올림픽 파크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후반 29분 마드필더 스티븐 음비아(스타드 렌)의 결승골로 1-0으로 승리.

국가별 메달 현황 (10일 오후 7시 45분 현재)					
순위	국가명	금	은	동	합계
1	중국	4	2	0	6
2	대한민국	3	2	0	5
3	미국	2	2	4	8
4	체코	2	0	0	2
5	네덜란드	1	0	1	2

◇11일(한국시간)
 ▲양궁 = 남자 단체전(11시·올림픽그린양궁장) ▲배드민턴 = 남녀 단식, 복식(11시·베이징 공과대학 체육관)
 ▲농구 = 여자부 한국-러시아(15시30분·베이징올림픽 농구경기장) ▲복식 = 60kg급 예선(16시15분·베이징 노동자 체육관) ▲펜싱 = 여자개인플뢰레 예선 및 결승(11시·국가컨벤션센터 펜싱홀) ▲핸드볼 = 여자부 한국-독일(16시45분·올림픽스포츠센터 체육관) ▲하키 = 남자부 한국-뉴질랜드(19시·올림픽그린 하키경기장) ▲유도 = 여자 57kg급, 남자 73kg급(13시·베이징과학기술대 체육관) ▲조정 = 여자 싱글스컬(16시30분·조정-카누공원) ▲요트 = 남자 RSX급, 470급(14시·칭다오 올림픽요트센터) ▲사격 = 여자 트랩, 남자 10m 공기소총(10시·베이징 사격장) ▲수영 = 여자 배영 100m, 남자 자유형 200m, 여자 접영 100m, 여자 평영 100m, 남자 배영 100m, 여자 자유형 400m, 여자 자유형 200m, 남자 접영 200m, 여자 개인혼영 200m(11시·국가아쿠아티센터) ▲테니스 = 남자단식(11시30분·베이징올림픽그린 테니스코트) ▲역도 = 남자 62kg(11시·베이징 항공광천체육관)

‘우생순’ 신화는 시작되었다

여자핸드볼이 2008 베이징올림픽 첫 경기에서 ‘우생순’ 신화 재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한국은 지난 9일 베이징 올림픽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부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세계 최강 러시아를 맞아 막내 김은아가 7골을 터뜨리는 활약으로 후반 맹추격을 펼친 끝에 29-29, 극적인 무승부를 만들어냈다. 한국은 2005년과 2007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연속 우승한 러시아를 상대로 불꽃 투혼을 발휘하며 승점 1을 따내 11일 독일 전을 비롯해 스웨덴, 브라질, 헝가리 등 만만치 않은 상대를 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6개팀씩 A,B조 나눠 조별리그를 펼치는 이번 대회에서 조 4위 안에 들어야 녹다운 방식으로 열리는 8강에 진출할 수 있다.



핸드볼

‘최강’ 러시아와 B조 1차전 8점차 뒤지다 극적 무승부

한국은 전반 전열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러시아의 기습을 꺾어놓지 못해 고전했다. 전반 20분이 지난 때만 해도 1-2 골차 리드를 지키던 한국은 골키퍼와 1대1과 맞서는 속공과 페널티로 기회를 살리지 못해 13-16으로 역전을 허용했고 후반 잇따라 골을 내줘 후반 6분에는 17-25까지 밀렸다. 맥없이 무너지는 듯 했던 한국은 ‘아줌마 부대’로 불리는 대표팀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20살의 김은아의 투지 넘치는 플레이에 힘을 냈다.

센터백을 맡고 있는 김은아는 167cm의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엘레나 플레노바(200cm·2골) 등 장신들이 버티는 골문을 겁없이 파고들며 슛을 날려 페널티스로 얻어내는 등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한국은 후반 17분부터 김차연(2골)과 김은아의 연속골에 힘입어 25-26, 한 골차로 따라 붙었고 이후에도 김은아의 슛이 골네트를 흔들며 패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김은아는 22분21초에 페널티스로 동점을 만들었고 경기종료 3분여를 남기고 27-29로 뒤지던 상황에서도 다시 페널티스로 성공시켜 1골차로 좁혔다.

러시아가 당황하는 사이 한국은 박정희가 점프슛으로 29-29로 균형을 맞춰고 남은 1분을 골키퍼 오영란이 실점없이 막아내 소중한 승점을 따냈다. 앞서 열린 B조 경기에서는 헝가리가 스웨덴을 30-24로 꺾고 1승을 올렸다.



‘8관왕 도전’ 펠프스 첫 금 세계新

남자 개인혼영 400m 4분03초84



수영(경영)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사상 최초 8관왕에 도전하는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23·미국·사진)가 수영 첫 금메달을 세계신기록으로 장식했다. 펠프스는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 국가아쿠아티센터에서 펼쳐진 수영 남자 개인혼영 400m 결승에서 4분03초84로 우승했다. 이번 올림픽 수영 첫 금메달이다. 펠프스의 기록은 자신이 지난 6월 말 미국 대표선발전에서 작성한 4분05초25의 기존 세계기록을 1.41초나 단축한 것이다. 2위 라슬로 체흐(헝가리)의 기록 4분06초16보다 2초32나 앞설 정도로 완벽한 승리였다. 펠프스가 왜 수영 황제로 불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경기였다.

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영범인 접영과 배영에서는 체흐와 3위를 차지한 팀 동료 라이언 로치트와 선두 자리를 놓고 엇치락뒤치락 했다. 그러나 200m 지점에서부터 펠프스는 폭발적인 힘을 보이며 두 선수와 조금씩 격차를 벌였다. 그리고 마지막 영범인 자유형에서는 아무도 펠프스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특히 마지막 50m 구간에서 펠프스는 TV 화면에서 이전 세계기록을 표시하는 선보다 거의 몸 길이 하나만큼 앞서서 힘차게 물살을 갈랐다. 터치패드를 두드린 뒤 기록을 확인하

려 머리를 돌리는 순간 수영장 벽에 살짝 머리를 부딪칠 정도의 스피드였다. 마지막 50m 랩타임은 27초85. 펠프스는 세계 신기록 수립을 확인한 순간 관중석에 있는 어머니와 두 누이를 쳐다봤다.

펠프스는 경기 직후 “매우 기쁘다. 흥분되는 경기였다”며 “200m 지점에서 다른 2명과 접점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 마음이 편치 않았고 그 때문에 좀 더 강하게 팔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유형에 대해 “정말 쉽다. 자유형은 (흥분시키는) 아드레날린 그 자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미국 언론들은 펠프스의 우승 소식을 긴급으로 타진하며 ‘금메달, 문제없다’, ‘이제 역사에 7개 남았다’ 등의 제목을 달고 경기 내용을 상세히 전하면서 펠프스의 8관왕 달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지난 9일 열린 여자농구 A조 1차전에서 한국이 브라질과 연장 접전 끝에 68-62로 승리한 후 선수들끼리 기쁨을 나누고 있다.

한국, 브라질에 역전승



농구

한국 여자 농구대표팀이 2008 베이징올림픽 조별 예선에서 연장 접전 끝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첫 승을 신고했다.

한국은 지난 9일 베이징 시내 올림픽 농구경기장에서 열린 여자농구 조별리그 A조 브라질과 1차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최윤아(19점)와 변연하(19점)의 활약을 앞세워 68-62로 이겼다.

한국은 이로써 조별 상위 4개국만 올라가는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호주, 러시아, 브라질, 라트비아, 벨로루시와 함께 같은 조에 속한 한국은 조별 예선에서 최소한 2승을 거두어야 4위 안에 들 수 있다. 경기 내내 팽팽한 접전을 펼친 한국은 막판 집중력을 발휘해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간 뒤 최윤아가 자유투를 잇따라 꽂아넣어 짜릿한 승리를 챙겼다.